

남해군, 문체부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김윤관 | 승인 2022.12.22 16:29

남해마을 살아보기 '오시다 남해군' 주제로 국비 1억 확보

남해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년 생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남해군을 비롯한 5개 지자체(나주·군산·영동·예산)가 선정됐으며 경남도에서는 남해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은 최근 한 달 살기와 같이 일상생활과 새로운 경험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지역다움'을 체험하고 현지인들만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고 현지인들처럼 살아보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3년 사업성과에 따라 2025년까지 계속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은 남해군관광문화재단과 함께 남해마을 살아보기 '오시다 남해군'이라는 주제로 참여했다. 남해읍을 중심으로 설천면과 미조면, 바래길 탐방센터를 활용해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3일 이상 체류(숙박)하면서 남해 현지인들의 숨은 명소, 맛집, 숙박, 카페 등 관광 사업체를 두루 즐기고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중구 관광진흥과장은 "최신 관광 트렌드에 대응해 체류형 관광객 증대와 주민주도의 관광상품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이번사업을 포함하여 올 한해 관광분야에서 5개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남해군이 문체부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진은 남해 한달 살아보기 기획전시 작품. 사진=남해군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윤관